

Q1

산불 피해지는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복원하나요?

**A** 산불 피해지 전체에 대해 산불 피해 정도(심, 중 경)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진행됩니다. 피해 초기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응급복구공사가 끝난 후에는 지역은 목적에 따라서 항구복원을 하게 됩니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으로 나뉘집니다. 자연복원은 자연환경보전림 또는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남아있는 움푹으로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인공복원은 식생복원, 사방복원,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산불에 대비하여 띠 형태의 활엽수를 조림하거나, 입목 간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막는 나무숲) 조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복원사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숲의 외형적인 모습은 산불 후 20년, 산림 동물상은 35년, 토양은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장기적인 과정은 산불 예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복원(좌)〉

〈인공복원(우)〉